

10편의 영화로 보는 무표정의 미학

아키 카우리스마키 감독 회고전
내일부터 광주극장·시네마테크
매주 2편씩...미니 전시도 운영

핀란드의 영화감독이자 예술 영화 마니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컷 감독으로 이른바 '무표정'의 미학으로 유명한 아키 카우리스마키의 주요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는 '아키 카우리스마키 회고전'이 오는 2일부터 31일까지 광주극장과 광주시네마테크에서 열린다.

1957년 핀란드 남부 오리마틸라에서 태어난 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 벽돌공, 우체부, 접시닦이 등의 직업을 전전하다 그의 친형 미카 카우리스마키가 연출한 1980년작 '라이어'의 시나리오를 함께 쓰고 배우로 참여하며 영화 커리어를 시작했다. 이후 그는 형 미카와 함께 장뤽 고다르의 1965년작 '알파벳'을 오마주한 이름의 영화사 '빌알파(Villealfa)'를 설립, 본격적인 영화감독의 길을 걷게 된다.

도스토옙스키의 동명 소설 '죄와 벌'을 그 시대 핀란드 헬싱키를 무대로 재탄생시킨 1983년작 '죄와 벌'로 감독으로 데뷔한 그는 1989년작 '레닌그라드 카우보이 미국에 가다'로 전세계에서 큰 주목을 받게 된다. 이 영화는 핀란드



▲영화 '성냥공장 소녀' 스틸컷

◀영화 '레닌그라드 카우보이 미국에 가다' 스틸컷

톤드라 지대에서 활동하던 세계 최악의 밴드 '레닌그라드 카우보이'를 주인공으로 아메리칸 드립을 꿈꾸며 뉴욕으로 향한 밴드의 로드 무비를 유쾌하면서도 씩씩하게 필름 속에 담아냈다.

이후 그는 '프롤레타리아 3부작'으로 불리는 1986년작 '천국의 그림자', 1988년작 '아리엘', 1990년 '성냥공장 소녀'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으며, 지난 2017년 '희망의 건너편'을 발표하는 등 아직까지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는 노동자나 난민, 부랑자나 불법 체류자 등 소외 계층을 중심으로 사회를 풍자하며 동시에 서늘한 유머를 던지는 이른바 '블랙 코미디'의 대가기도 하다. 절제된 카메라 움직임과 단순한 세트, 최소한의 대사와 연기를 통해 작품을 완성시키는 그의 영화의 특징은 '무표정'. 영화 속 주인공들은 슬프거나 분노할 때, 심지어는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마저도 줄곧 무표정한데, 이는 결국 우리가 느끼고 목도하는 다양한 순간과 현실 속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모두 덮어내며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이 어두운 사회에 던지는 최소한의 반발 같기도, 그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을 담아내는 것 같기도 하다.

클래식부터 복음절 민속 음악, 블루스, 로큰롤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탁월한 음악 연출도 아키 카우리스마키 감독의 작품이 가진 특징이다.

김 지무위 등 다양한 감독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감독들의 감독'이자 여전히 평단뿐 아니라 전 세계 시네필과 수많은 컷팬들의 열광적인 찬사를 받는 아키 카우리스마키의 영화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이번 회고전은 2일부터 31일까지 매주 2편씩 상영된다. 회고전 기간 '윤희에게'의 임대형 감독, '소공녀'의 전고은 감독과 서울아트시네마 김숙현 프로그래머의 시네토코도 마련되며, 작가 '의외의 사실'이 그린 10편의 그림 티켓도 증정한다.

한편 광주극장 1층 로비에서는 미니 전시 '아키 카우리스마키 스튜디오'를 운영해 관객들에게 영화를 보는 깊이와 재미도 더해 줄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강진 한국민화뮤지엄 메타버스 전시장 구축

강진군 청자촌에 위치한 한국민화뮤지엄이 메타버스 전시장을 구축하고 다양한 민화 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국민화뮤지엄에 따르면 ㈜스마트큐브와 협업을 통해 만들어진 메타버스 전시장은 월드(World)다. 'WILL'과 'WORLD'의 합성어로 상상이 현실이 되는 메타버스로 박람회, 전시회 등 글로벌 행사를 진행하는 플랫폼이다.

월드에는 한국민화뮤지엄 건물이 구현돼 있고, 현재 한국민화뮤지엄에서 관람 가능한 세 가지 전시가 진행중이다.

우선 한국민화뮤지엄 1층 상설전시실에서 만날 수 있는 조선시대 진본 민화가 해설과 함께 제공된다. 그리고 현재 2층 기획전시실에서 진행 중인 현대민화 특별전으로 김지숙 작가가 참여한 '페스티벌(Festival)'전과 생활민화관에서 선보이고 있는 김생아 작가 초청 기획전 '동백 하영 핀 날'도 월드 내에서 관람할 수 있다. 또한 한국민화뮤지엄 본관인 조선민화박물관 주관으로 영월관광센터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민화 꽃세'전도 만나볼 수 있다. /최진화 기자



실버마이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소리모아중창단' /전남문화재단 제공

김옥길 호른 연주회...8일 유스퀘어 문화관



제7회 김옥길 호른 독주회가 오는 8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독주회는 '소리의 서커스(Circus of Sound)'가 부제다. 호른리스트 김옥길은 호른이라는 악기가 독주악기로서 가진 매력을 클래식 애호가와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번 독주회를 기획했다.

프레데릭 쇼팽의 '화려한 폴로네이즈', 바흐 라프 넬히벨의 '호른과 피아노를 위한 스케르췌 콘체르탄테', 폴커 다비드 키르히너의 '세계의 시', 니콜라스 파가니니 '파리스 24번', 칼 라이네케 '호른과 피아노를 위한 노투르노', 마이클 호빗의 '서커스 모음곡'을 만날 수 있다.

'서커스 모음곡'은 한국 초연 작품으로 행진, 사자와 호랑이, 코끼리, 그네타기, 광대 등 서커스의 다른 측면을 묘사한 5악장 작품이다. 리듬의 복잡성과 역동성의 미묘한 변화가 담겨

연주회의 오프닝이나 엔딩에 연주되는 곡이기도 하다.

풍부한 울림과 서정적인 음악성으로 관객과 함께 소통하는 호른리스트 김옥길은 전남대 예술대학 음악학과와 동 대학 일반대학원을 수료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체코 프라하 음악원 디플롬 과정을 수확하고 이태리 노르마시립음악원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다.

고교 시절 영호남예술제에서 1위 없는 동상을 수상했고 지난 2007년 부산 음악 콩쿠르 파이널에 오르며 연주자로서 두각을 나타냈다.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안토닌 드보르작 작곡 콩쿠르 폐막 연주에 초청돼 국내 및 유럽 현지 음악가들에게 주목을 받았고, 이탈리아 코니합창단의 초청을 받아 지휘를 하기도 했다.

독주회는 피아노 김민주, 트럼펫 배재혁과 전보영, 트럼본 류재현, 튜바 김진철이 함께한다. /최진화 기자

광주문예회관 국악상설공연

광주문예회관예술회관이 7월 한 달간 여름 무더위를 날릴 신명나는 광주국악상설공연을 기존보다 하루 늘리면서 더욱더 많은 관람객들이 공연을 즐길 수 있게 됐다.

광주국악상설공연은 시립예술단과 민간예술단체가 참여해 전통국악, 창작국악, 국악마술극, 미디어아트와 만난 국악 등 국악의 모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광주의 대표 브랜드 공연이다.

첫 공연인 1일에는 광주시립창극단이 '춘향가로 노닌다'를 주제로 판소리 춘향가의 내용을 극으로 각색한 작품인 단막창극 '어사상봉'과 농부들이 모를 심을 때 부르는 노동요인 민요 '농부가' 등을 선보인다.

7일에는 빛고을무등기야금 연주단이 '琴&불후의 명곡 유태평양의 樂 콘서트'를 주제로 '비나리', '추억으로 가는 당산', '풍문으로 들었소'와 무용 '태평무'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다. /오지현 기자

전남문화재단 문화가 있는 날 실버 마이크 '청.바.지' 개막

전남문화재단이 2022년 문화가 있는 날 기획 프로그램인 '실버마이크 in 전남 - 청.바.지(청춘은 바로 지금)'을 오는 11월까지 전남 도내 곳곳에서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 지역문화진흥원, 전남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사업인 '실버마이크'는 만 60세 이상 실버세대들이 직접 무대에 서는 공연 프로그램이다. 재단을 통해 전남 주관처로 선정돼 지난 4월 오디션을 통해 어르신 22개 팀 총 83명을 선정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달 29일 목포 평화광장에서 첫 공연을 시작으로 1일 오후 4시 순천 만국가정원 호수공원, 2일 오전 11시 장흥 정남진 토요시장 무대에서 펼쳐진다. /오지현 기자

중흥그룹
www.s-class.co.kr



더 특별하게 설계합니다
더 아름답게 짓고 있습니다
클래스, 그 이상을 넘어

—
Beyond the CLASS
중흥S-클래스